운영위원회 회의록

<table>
<tr><td colspan="5">프리웰지원주택센터 운영위원회 제1차 정기 회의</td></tr>
<tr><td>일 시</td><td>2024. 2. 14. (수)
10:00 ~ 11:20</td><td>장 소</td><td colspan="2">대학로 유리빌딩 3층 회의실1</td></tr>
<tr><td>참석자</td><td colspan="2">총 5명
(김영희, 김혜정, 송영재, 이형숙, 허혁)</td><td>기 록</td><td>김재환(간사)</td></tr>
<tr><td>회의내용</td><td colspan="4">❑ 성원보고
운영위원장이 재적 운영위원 7명 중 5명(과반수 이상) 참석, 2명 불참(임소연 위원은 참석했으나 다른 일정으로 회의 참석을 못하고 조기 퇴장)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개회 선언
운영위원장이 2024년 제1차 프리웰지원주택센터 정기 운영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함.

❑ 전차회의
운영위원장이 일시, 장소, 참석인원, 성원보고, 보고 안건, 심의 안건, 기타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함.

❑ 보고 안건
1. 제1호 2023년 사업 결과 보고
김재환 간사가 붙임자료1.[2023년 프리웰지원주택센터 사업결과 보고] 참고하여 2023년 사업내용, 추진성과, 평가내용, 입주민 동향 위주로 보고함.

(결정 사항)
- 참석 위원 전원이 보고 안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동의함.

2. 제2호 2023년 정산 결과 보고
김영희 운영위원장이 붙임자료2.[2023년 결산서(요약)], 붙임자료3.[2023년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요약)] 참고하여 2023년 정산 결과를 보고함.
- 지원주택 종사자 채용이 늦어지면서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함.
- 운영비 잔액은 주로 종사자 교육 등을 진행하지 못해서 발생함.
- 종사자 부족과 그에 따른 직접 지원이 늘면서 사업 진행이 여의치 않아 사업비 잔액이 발생함.
- 전체 반환금은 작년 12월 29일에 반납 조치함.

송영재 운영위원 : 붙임자료3. 5번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계획 금액 수정 요청

(결정 사항)
- 참석 위원 전원이 보고 안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동의함.</td></tr>
</table>

	❑ 심의 안건 1. 제1호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김영희 운영위원장이 붙임자료4.[2024년 1차추경 예산안(요약)], 참고하여 2024년 1차 추경 예산안을 설명함. - 본 예산은 작년 말 이사회 승인 예산으로, 보조금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이며, 1차 추경은 보조금과 인건비 확정된 금액을 반영하여 변경 편성함. - 세입 내역 중 보조금은 0.2% 증액 된 보조금 확정 예산 반영 - 세출 내역 중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확정 예산 반영 -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커뮤니티룸 임대료 인상에 따른 조정 금액 반영 - 각 권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비 증감 조정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 운영비로 편성 - 추후 예산 자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차배분사업을 각 구별 지원주택사업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예산 편성코자함. 김영희: 입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은 입주민과 함께하는 워크숍 등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사업 또는 개인별로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 비용 등인데, 현재 예산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장애인지원주택사업 예산 자체가 확대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컨소시엄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인별맞춤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지원주택 예산에서 개인별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형숙: 사업비를 자치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겠나? 송영재: 지원주택 담당이면서 거주시설 담당이기도 하다. 탈시설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현재 복지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사업비 요청을 하기에는 자치구가 가진 근거가 없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입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고 요청하면 좋을 것 같다. **(결정 사항)** - 참석 위원 전원이 안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동의, 승인함. ❑ 기타 - 운영위원 총괄 의견 제언 1. 운영위원 소감 및 제언 이형숙: 올해는 예산 남기지 않도록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김영희: 입주민과 직원 누구나 만족할 만한 프리웰지원주택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허혁: 맞춤형일자리는 어떻게 되었나? 이형숙: 권리중심 일자리랑 성격이 다르다. 일단 공고 내용을 공유하겠다. 김영희: 권역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각 권역 팀장들에게 공유하겠다. ❑ 폐회 위원장이 2024년 제1차 프리웰지원주택센터 정기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언(11:11)함.
정책건의	- 지원주택 예산 잔액이 큰 규모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에서는 예산 부족을 느끼

	고 있음. 이는 구별로 예산이 나뉘어져 있어 구별로 입주민의 지원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동함. - 또한, 지원주택 입주민들 중 탈시설 3년 종료, 권리중심일자리 종료 및 56시간 이하 복지일자리 참여로 사회활동시간 미인정 등 활동지원시간이 대폭 줄어들었고, 근로지원서비스 이용불가로 일자리 참여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음. 이렇듯 일자리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입주민들은 사회참여와 소득 확보의 기회가 줄어듬과 동시에 관계 단절과 고립 상황에 더 많은 빈도로 노출되고 있으며,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지원 인력들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과 지원보다는 활동지원 공백을 메꾸는 직접 지원에 더 많은 인적 역량이 투입되고 있음. - 이에, 지원주택 예산의 확대와 탄력적 운용, 예산 사용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개인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면 하고, 활동지원시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되기를 바람.

상기와 같이 진행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02. 14.

확인자 (직책) 운영위원장 (성명) 김 영 희 